

지은이의 해박한 지식 돋보이는 문화비평서

마정미의 《지루한 광고에 도시락을 던져라》를 읽고

이만교 | 소설가

드라마나
뉴스를 시청하
지 않는 사람은 있
을지 모르지만 광고를
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
이다. 두살박이 우리 딸아이조차,
아홉시 뉴스는 보지 않으면서 아홉
시 뉴스가 시작되기 전의 긴 광고시간을
좋아하니 말이다. 나도 새로 나온 광고가 있으면
절대 채널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는다.

광고 통해 살펴본 소비사회의 욕망

어쩌다가, 언제부터 프로그램보다 광고가 오려
더 볼 만해졌는지 모를 일이지만, 아무튼 광
고는 거의 다 재밌다. 재미있는 광고는 다만, 너
무나 빠르게 끝나는 차창 밖 풍경 같아서, 혹은
너무 빨리 도착한 놀이동산의 88열차 같아서 끝
나면 아쉬울 따름이다.

그래서인지 마정미의 《지루한 광고에 도시락
을 던져라》(문예출판사)는, 마치 반쯤밖에 이해
하지 못하고 본 영화에 대한 해설서를 찾아 읽는
느낌을 준다. 읽다 보면 ‘아하, 그 광고에 이런 뜻
과 재미가 숨어 있었구나’ 하는 깨달음을 준다는
점에서 우선 흥미롭다.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에
자주 봐왔던 유명 광고들을 텍스트로 삼아 설명
하고 있어, 마치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
비밀을 엿듣는 것처럼 친근하고 재미있다.

가령, 이 책의 제목인 ‘지루한 광고에 도시락
을 던져라’는, 10대를 타깃으로 한 모 잡지의 광
고문구 ‘지루한 세상에 불타는 도시락을 던져
라’를 패러디한 것이다. 그런데 이 잡지 광고문
구는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에서 아이디어
를 얻은 것으로 10대만의 독립문화를 선언하고
자 한 것이라 한다. 이렇게 읽다보면 ‘이렇게 간
단한 구절에 이렇게 깊은 뜻이?’ 하는 발견과 함
께, ‘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이렇게 가벼운 광고
문구로?’ 하는 어이없음의 실소가 동시에 생겨

난다. 이 아이러니한 감정이야말로 이 책을 읽는
재미다.

광고에 대한 저자의 분석을 신문기사 읽듯 성
큼성큼 따라가다 보면 영상세대의 특성, N세대
문화에 대한 이해, 그리고 21세기의 전망에 대한
저자의 박학까지 엿볼 수 있다. 특히, 한편의 광
고를 해석할 때마다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읽어
보라는 식으로 후미에 툭툭 언급하는 각종 양서
들(소위, 포스트모던한 문화에 대해 언급한 책
들)이야말로 이 책의 독자에게 선사하는 부록이
기도 하다.

사실 이제 광고는 일개 상품의 홍보전략에 머
물지 않고 기술과 상술과 예술이 첨예하게 맞물
리는 첨단 장르로 자리잡았다. 광고를 이해하는
것이 미래를 전망하는 일이 돼버렸다. 그러나 저
자의 광고분석을 통해 내가 느낀 미래는 꽤나 혼
란스럽고 어두웠다. 광고를 통해 살펴본 영상세
대, N세대, 그리고 포스트모던한 소비사회는 허
망한 이미지, 의미와 깊이의 상실, 탐욕스런 욕망
의 과부하에 대책 없이 시달리고 있었다.

확실히 광고를 보는 것은 재밌지만, 그 재미를
드러내는 첨단기술과 아이디어 또한 참신하지
만, 그 기술과 아이디어 뒤에 숨어 있는 상품의
소비전략은 음흉하며 광포하기까지 하다. 제품
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전이든, 의미든, 이
미지든 자기 것으로 패러디하는 광고 생리는, 어
떤 조건에서든 어떤 대상이든 자기증식의 목적

“이 책은 마치 반쯤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본 영화에 대한 해설서를 찾아
읽는 느낌을 준다. 읽다 보면 ‘아하, 그 광고에 이런 뜻과 재미가 숨어 있었
구나’ 하는 깨달음을 준다는 점에서 우선 흥미롭다.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에
자주 봐왔던 유명 광고들을 텍스트로 삼아 설명하고 있어, 마치 내가
잘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비밀을 엿듣는 것처럼 친근하고 재미있다.”

으로 활용하는 영화 <에어리언>의 괴물과 닮아
있다. 그런 점에서, 가벼움을 즐기되 그 가벼움
속에 숨어 있는 음흉한 판매-소비욕망을 어떻게
경계할 것인가는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진 매우
중요한 과제다.

‘깜찍한’ 광고 뒤에 숨은 ‘끔찍한’ 상술

작년 정동진에 갔다가 역 앞에 실제 ‘모래시계’
를 잔뜩 늘어놓고 팔고 있는 가판이 즐비하게 늘
어서 있는 것을 보고 실소와 경악을 동시에 느낀
적이 있다. 역 주변에 새로 생긴 화려한 카페와
모텔로 정동진역이 주던 본래의 청아한 풍경과
드라마 <모래시계>가 보여주던 쓸쓸하고도 낭만
적인 이미지는 깨끗이 사라지고 말았다. 그럴 수
도 있는 일이지 싶으면서도 내가 실소만 하지 않
고 경악까지 했던 것은, 우리가 대중소비문화를
그대로 받아들이는 한, 전국토가 이 모양이 되지
않을까 싶어서였고, 나아가 우리 심성 또한 이
모양으로 얼룩지진 않았나 싶어서였다. 그리고
보면 우리가 진지하게 광고에 대해 사유하고 경
계할 때가 온 것 같다.

아무튼, 깜찍한 광고 속에 숨어 있는 끔찍한
상술을 발견하는 재미. 이것이야말로 저자가 우
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으로, 이 책을 읽는
진짜 재미일 것 같다. ●